

토론 자료
대구대학교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윤관희(영어영문학과 부교수)

토론 안건 1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에 대하여

교수 개인의 연구역량이 강화되면 교육내용의 창조적 생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느냐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의 대학 안팎의 비판적 분위기를 볼 때 둘 사이의 필연적 관련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교수 개인 연구와 연구물 출판에만 집중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특히 학부생의 수요에 부응한 교육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이런 주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교수 개인적 연구역량과 교육의 선순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면, 현재 대구대학교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간의 진정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 수년전 LINK 사업의 수주에 고무되고 실적 수립에 매몰된 나머지, 대구대학교가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또는 산학중심(취업)대학 중에서 어느 길로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냐에 대해 구성원들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교육부 사업의 수주 분위기에 휩쓸려왔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은 대학 체계 자체에 의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별 학교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교육중심대학은 대개 석사과정 까지만 개설되어 있으며 이런 부류의 학교들의 목표는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수 1인당 학생수, 강좌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상급 연구중심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생 공급원 역할도 감당한다. 반면 연구중심대학은 대체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으며, 수준 높은 대학원생의 수급, 공동연구, 학제 및 학과간 융합과목 증대 등 연구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이 수립된다.

그렇다면 대구대학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만 지속가능한 대학이 될 것이냐에 대해, 구성원 전체의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처럼 일시성 국책사업의 파편적인 수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때에 비로소 교수들의 목표와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토론 안건 2 - 사립대학의 존재조건에 대하여

한국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단의 지속적인 투자 없이 주로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장학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준공립대학”이라고도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설립자의 취지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사립대학의 존재 이유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대학교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설립 재단 또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재정 후원 및 운용이란 측면은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대구대학교가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는 첫째, “지속적인 신입생 충원을 통한 기본 생존력 강화”와 둘째, “설립자의 고유한 교육적 사명”을 얼마나 교육 과정에 투여하고 그러한 인재상을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구조조정과 신입생 충원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대구대학교의 설립자의 취지가 제대로 교육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사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구대학교의 사학 정체성에 관한 어젠다

- ☐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대구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만 육성해야 하는가?
(특수교육, 재활분야, 사회 복지 등등)
- ☐ 대구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건학 이념을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사학의 특수성을 개발할 것인가? (빛, 사랑, 자유의 기독교 정신이 구현된 교과과정 운영)

토론 안건 3-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토론자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최근의 흐름으로 보아 소비자주의 (학습자 중심) 모형이 대세인 듯하다. 지난 10여년간 대학 집행부가 LINK, ACE를 비롯하여 많은 국책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형식에 대한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인정할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류에 편승한 실험적 교과목 운영이나 방식(플립드 러닝, 캡스톤디자인)이 대구대학교 학생 수준의 학습자들로부터 실질적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검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탐다운 방식의 교육 실험이 교수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낳을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감안해야지만,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대구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 ☐ 교육환경 개선
 - 소규모 강의실 및 토론식 계단형 강의실 변경
 - 강좌당 학생수 조절
- ☐ 교수자의 교수법 제고
 - 강의력이 취약한 교수진의 교수력 향상 프로그램
- ☐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 강화
 - 강의평가 전면 공개
- ☐ 수업 운영 관리 제고
 - 수업일 제고 (월화목금: 학부수업, 수:대학원), 보강 관리
- ☐ 대학원 활성화
 - 대학원생 유인을 위한 인근 대학 수준의 장학금 지급, 철저한 학사 관리
- ☐ 교양 교육의 특성화에 관련된 의제
 - 교양 교육 또는 창조융합대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취업 대비, 창조융합적 인재 양성, 학생 모집 용이.....?)
 - 전공 지식과의 분리가 교양 교육 강화를 의미하는가?
 - 전공 교육의 강화는 교양 교육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주공급원이 아닌가?
 - 교양 교육을 학생 모집의 유인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전공 교수 1인당 교양 1과목 개발은 학교 재정 및 교양 교육 체계로의 변신에 도움이 되는가?